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막 17일만에 관람객 30만명 돌파

바다 양식장 그대로 ... 살아있는 교육장 자리매김

미래 인류의 식량자원인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의 누적 관람객이 30만명을 돌파했다. 완도군은 "개막 17일째인 지난 27일 현재, 목포에서 부인 및 두 자녀와 함께 온 김정규(45)씨 가족이 30만번째로 입장해 박람회 조직위가 주는 행운의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람객이 꾸준히 줄을 잇고 있는 것은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소재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 콘텐츠가 신선하기 때문이다. 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먹어보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

〈해조류 가치이해 교육장으로 호평〉=이번 해조류 박람회는 미래 해조류의 소비와 산업화를 이끌 세대의 학생들에게 해조류의 가치를 이해시키는 교육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216개교 2만7000여명의 학생이 박람회장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등 교육 효과가 높다. 직접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과 체험장에는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생태환경관'에서는 바다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해조류의 중요한 가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산업자원관은 미래 자원의 보고(寶庫) 해조류의 무한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또 '해조류 체험장'은 바다 양식장을 그대로 옮겨서 교육적 효과를 높인 살아 있는 교육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이 밖에도 순수한 국내 기술로 세계 세 번째로 완성한 '직교식 3D 고선명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바다 세계를 엿볼 수 있는 '3D 영상관'도 인기 전시장이다. 해녀들이 평생 한 마리 잡을까 말까하는 희귀 백해삼(白海參)도 전시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종 전시도 호평을 얻고 있다. 해삼, 멍게, 가리비 등 각종 해산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체험장, 네모난 김 모형의 고경관념을 깨고 별 모형, 달 모형, 하트 모형 등 '내 맘대로 김뜨기 프로그램'도 인기다.

해조류를 주제로 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관련 상품을 먹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고 있다. 녹지않는 해조류 아이스

콘텐츠 신선·체험행사 다채

학생·가족 단위 관람객들 몰려

완도산 톳·다시마 수출 활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톡톡'

크림과 순수한 해조류를 재료로 해 칼로리 걱정이 없는 해조국수, 해조 라면을 직접 만들어 먹어볼 수 있어 흥미를 끈다.

〈완도산 톳·다시마 수출 활기〉=이번 박람회의 경제 효과도 크다. 완도군 지난 4월 14일에는 7개국, 해조류 관련 10개사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수산물 기업 30개 업체와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이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조류를 비롯해 전복, 해삼, 광어 등 다양한 품목 1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한국 Y기업과 미국 H마트가 100만 달러 수산물 수출·입 MOU를 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도 올렸다.

또 지난 11일에는 한국과 일본 해조류 관련 기업 20개 업체가 참여하는 수출 계약식을 열어 완도산 톳과 다시마 수출 36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학술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국내외 해조류 관련 전문가 등 관계자 350여명이 참여해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해조류산업과 양식기술, 미세조류 산업화 연구논문 발표 등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해조류 박람회가 해조류의 가치를 세계화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해조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는 지난 11일 개막해 오는 5월 11일까지 계속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해조류 요리교실에서 요리법을 배우는 학생들.



해조류를 직접 만져보며 즐거워 하는 학생들.



박람회 주제관에 전시된 대형 다시마.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란 주제로 열리고 있는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장 전경.

〈완도군 제공〉

순천·곡성 농가 참여 '한국매실사업단'

생산·유통·관광 연계 6차 산업화 추진

지역 전략 식품산업 선정

3년간 44억 사업비 투입

순천과 곡성지역 농가들이 참여한 '한국매실 사업단'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단에 선정됐다.

한국매실 사업단에는 순천과 곡성 지역 1071 농가와 순천대, 순천애실㈜, 곡성 매실연합회 등 10개 기관·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뽑힌 한국매실 사업단에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비와 지방비 각 20억원과 자부담 4억원 등 4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역통합 추진사업인 이번 사업은 인근 곡성군과의 협력을 통해 순천시 매실 생산자단체와 곡성군 매실 연합회가 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게 된다. 또 순천대 식품연구기관 등 산·학·연·관의 공동참여로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한국매실 사업단은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매실의 생산·가공·유통·마케팅·관광을 연계, 6차 산업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단이 속한 순천·곡성 지역의 매실 생산량은 연간 1만1000t, 전국 생산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인근 광양·구례지역 생산량까지 포함하면 전국 매실 생산량의 50%가 넘는 대표적인 지역특화 고소득 작물이다.

순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800여의 매실을 생산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매실 주산단지로서 매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한편 전남 도내에서는 2005년 보성녹차, 함평과화농업, 진남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등 3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유자 식품사업까지 모두 11개 사업단이 770억원의 지원받았다.

/곡성=김계숙·순천=예정열기자

함평 나비대축제 엑스포공원 무료 개방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애도 분위기 확산에 맞춰 '나비 대축제'를 취소했던 함평군이 축제 개최장소인 엑스포 공원을 오는 5월 11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이 기간 축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시관은 문을 닫는다.

함평군은 "관람객이 편히 볼 수 있도록 공원만 개방을 하는 대신 관람객이 노래를 부르는 등의 지나친 행동은 금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22일 나비축제를

취소하고, 함평 엑스포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나비생태관, 자연생태관, 다육식물관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한 관람은 유료로 개방할 예정이었다.

함평군 관계자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당초 5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함평 엑스포공원을 '나비 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함평=황운혁기자 hwang@

목포시립도서관, '인문독서 아카데미' 선정

목포 시립도서관(관장 김윤식)은 '2014년 인문독서 아카데미' 수행기관 선정됨에 따라 감사로 선정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문독서 아카데미는 주민의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넓히기 위해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이 주최 주관하고, 목포대 유림문화연구소가 협력해 진행한다.

올 인문독서 아카데미에 선정된 도서관은 목포 시립도서관을 포함해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7곳이다.

목포 시립도서관은 인문독서 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감사로 선정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반기에는 오는 5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하반기는 9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 독서중심 교육과정으로 총 20회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www.sinoktech.com
창사 62주년

환경과 가족을 생각하는 기업!

모터 전문업체, 신재생전문기업, 공기정화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고효율 에어컨모터, DC모터 등

- 최고의 품질과 최저의 합리적인 가격
- 최단 시일 제품공급으로 고객만족 실현
- 신기술 도입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 적극 투자
- 첨단 녹색산업 제품개발에 선두주자

태양광 가로등

We will be your best partner!!

신옥테크 (주)

본사 광주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4-57(장덕동) T(062)959-3520 F(062)959-3521
영광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59 T(061)353-3520 F(061)902-2020